

인천 119 스토리

11
2022

현장 소방

갯벌에서 길을 찾다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를
다녀와서

안전 소방

소소심! 안전상식!



목차

함께 소방



현장 소방



안전 소방



칭찬 소방



문화 소방



행사 소방



인천소방 소식



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 간 2022. 11월 ~ 2023. 2월

추진목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내용**
- 다중이용시설, 물류창고 등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 내 전기용품, 후드·덕트 등 화재위험요인 제거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화재취약자 대피 능력 강화
 - 일상 속 부주의 화재 예방 등 대 시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인턴제 시범 운영



기 간 2022. 11월 ~ 12월

추진배경 상황관리요원 인사이동 전 체계적인 선 교육 후 실전 배치

대 상 희망 소방공무원 20명

- 추진내용**
- 주·야간 근무로 실질적인 체험교육
 - 신고접수 및 구급상황관리 업무 등 이론과 실습



통기타 치는 소방관

글 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성희



소방기본법 1조(목적)에는 소방관의 존재 이유를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있다.

넓게 해석하면 근무일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비번일 때 재능 기부를 통해 국민의 정서적 안정, 행복 나눔 전도사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기타를 접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되어가며,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강화군에도 소방관인 나의 목적에 들어맞는 동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실천하고자 2018년 11월, 강화 통기타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우리 강화 통기타 클럽에는 소방관, 경찰관, 교사, 요양보호사, 자영업자 등등 다양한 직업군의 회원들이 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도 다 다르지만, 통기타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나, 각종 지역행사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 나눔 전도사 역할, 그리고 강화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연 연습하고 있다.

2018년 12월 연말연시 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제12회 고려산 진달래 축제’ 공연, 2019년 7월 ‘마리의 숲 라이브 공연’, 2019 ‘들이대 야외공연장 음악회; 공연, 2019년 12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어우름 잔치’ 자선공연 등 크고 작은 공연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연행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올해 9월 코로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환과 함께 10월 15일 광성보 광장에서 ‘제1회 강화 통기타 정기 가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2018년 12월 연말연시 거리 공연



▷ 2019년 4월 진달래 축제 공연



▷ 2019년 12월 가족 어우름 잔치 공연



▷ 2022년 10월 광성보 제1회 강화통기타 클럽 가을 음악회

강화군의 대표적 문화재 중 하나인 광성보를 찾은 많은 관광객과 같이 호응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오는 12월 17일, 강화군 길상면 소재 ‘강화요양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입소자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찾아가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강화군민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전도사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하고자, 찾아가는 자선공연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갯벌에서 길을 찾다

글 영종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종필

땅에는 사람과 차 등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해로,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공로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갯벌에는 길이 있을까?

여기 영종소방서가 위치한 영종도는 사면이 바다와 접해있는 도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쉬워, 갯바위 낚시나 해루질 등 각종 연안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각종 연안 레저 활동의 인구 증가는 수난사고 발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심이 얇은 바다가 갯벌 등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은 자칫하며 방향감각 상실이나 안개 등으로 인한 고립, 익수사고로 이어진다. 영종소방서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관내 모든 갯벌의 특성을 파악한 갯벌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었다.



갯벌 가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고민이 정말 많았다. 지도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갯벌을 보면 넓고, 광활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고, 몇 달 동안 근무 날과 비번에 현장 답사를 나가 갯벌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갯벌 특성을 수집했다. 물 때 시간이 변하여 조사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여러 번 같은 갯벌을 조사하기도 하고, 깊은 갯벌에 잘 못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못 할 뻔한 뒷골이 서늘했던 경험들도 많이 있었다.

갯벌 조사를 해오다가 알게 된 사실은 갯벌 종류에 따라 진입이 가능한 갯벌과 진입이 불가능한 갯벌이 있다는 것이다. 해양환경정보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암반 지역, 모래갯벌(모래 70% 이상), 펄갯벌(모래 20%~30% 이하), 혼합갯벌(모래 40%~70%). 이렇게 4종류로 나누고 있다.



▷ 모래갯벌



▷ 펄갯벌



▷ 혼합갯벌

모래갯벌로 되어 있는 지역은 경운기, 트랙터, 사륜오토바이 등 다양한 장비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사람이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펄갯벌 지역은 어촌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뺨배 외에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혼합갯벌 지역은 갯벌의 상태에 따라 이동장비 수단이 달라진다.

이런 특성들을 파악하여 영종 갯벌 가이드를 지역마다 집입 여부 및 이동 수단 파악 대원 진입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갯골의 위치를 표시하여 사전 위험요인 제거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봄부터 여름이 오는 시간 동안 갯벌에서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갯벌 가이드에 고스란히 담았다. 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과 갯벌 사고 조난자 구조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다녀와서

글 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안전지휘팀 소방교 임세준



아이들이 일어나기에는 다소 이른 시간인 토요일 새벽. 가을철 단풍놀이 인파가 고속도로로 몰려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이들을 깨워 계룡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향해 출발했다.

한때 큰 붐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다 알만한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 서로 기량을 겨루던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특전사, 707부대, 해병대를 일찌감치 깨우쳤다.

남자아이들이라 군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있어, 가끔 근처에 있는 사격장에 데려가거나 유튜브 밀리터리 관련 콘텐츠만을 보여주곤 했는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가 3년 만에 개최된다는 뉴스를 보고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볼 참에 계획을 세워보았다.

지난해, 성남 비행장에서 열린 ‘2021 ADEX 서울에어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관람 제한을 초등학교 이상으로 두어, 어쩔 수 없이 당시 유치원생이던 작은아이는 두고, 큰아이만 데리고 다녀와야만 했다.

그때 큰아이가 블랙이글 팀의 묘기 비행과 수많은 전투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굉장

히 좋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작은아이에게도 지난해 데리고 가지 못했던 미안함을 풀고자 함께하게 되었다.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3시간 만에 목적지인 계룡대에 도착했다. 지난여름 가족 여행을 가던 중 차가 고장을 일으켜 무척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무리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이동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행사 관련 주차장부터 울려 퍼지는 군가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라 떠올려보니 19년 전 신병 교육훈련단 교관으로부터 어떤 멜로디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크게만 부르라 했던 그 군가가 흐르고 있었다.

군 생활 동안 원곡을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 제대하고 그것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듣게 된 군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래 같이 들리는 것이, 무조건 큰소리로 악만 쓰며 불렀던 군가에 대한 기억 왜곡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끼게 했다.



행사장에 입장하여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K-방산의 자랑. K-9 자주포부터 K-2 흑표 전차 등 우리 아이들이 척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무기들이었다. 야외 전시장 한쪽에 있던 충남소방 소속의 노란색 이동 체험 차량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내 관심은 그쪽으로 쏠려, 군문화엑스포를 즐기러 온 아이들에게 소방 체험을 해보겠냐는 무리수를 두었다.

대답은 역시 고민도 없는 거절. 아빠가 소방관이 된 이후로 소방에 관심이 없어진 아이들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지상 장비들과 하늘 장비들을 보고 직접 탑승하며 기념 촬영을 하는 동안, 각 장비의 안내를 맡은 현역 군인들이 장비별 제원 및 특성에 관해 설명하며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것을 보며, 짜임새 있게 준비한 정성이 느껴졌다.

한가지 조금 아쉽다면, 군대 용어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탓에 내가 다시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수고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 아동 심리학 전문가의 말처럼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이해하고 있어, 아빠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아내가 전날 늦은 시간 미리 만들어 놓았던 밥버거를 점심시간보다 일찍 먹기로 했다. 점심시간에는 푸드코트에 길게 줄을 서야 할 것이고, 앉을 자리는 영락없이 부족해 보이니 우리는 일찍 식사를 마친 후 덜 붐비는 곳에서 여유롭게 관람할 생각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니 마침 하늘에서 707대원들의 고공낙하 시범이 시작됐다. 고도 2km 상공에서 뛰어내려 200km/h의 속도로 강하하다, 적정 높이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시범인데, 첫 강하를 한 것은 여자 대원들로, 그 뒤를 이어 남자 대원들과 주한 미군 공수부대원들의 시범이 차례로 이어졌는데, 가히 이번 행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었다. 워낙 높은 고도에서 시작하다 보니 아이들은 고공 낙하 시범에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낙하산이 펼쳐지기 전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어렵게 확인하고도 순식간에 낙하산을 펼치고 지상에 착지하니, 그 찰나의 순간을 제대로 못 봤다고 다시 보고 싶다 떼쓰는 것이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꿀밤 한 대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고공낙하 시범 뒤로 행사 일정표상 이렇다 할 다음 행사가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스들을 차례로 돌아보니 어느덧 시간은 오후 2시를 조금 넘은 후였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지 아이들에게 물으니, 애들도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보다 좀 많이 걸어 피곤했었는지 마지못해 집에 가자고 하였다.

돌아오는 길, 새삼 나의 중학생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도 우리 아이들처럼 전투기에 관심이 많아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어쇼’에 갔었는데, 다음 해 지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오랜 시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덧 그때의 아버지 나이만큼 내가 어른이 되어 두 아들과 함께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다녀오니, 아버지와는 많이 쌓을 수 없었던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남겨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알아보는 부지런함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소심! 안전상식!

글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장 신주환



만일 일상생활 중 화재를 발견하거나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부분 사람은 당황해하겠지만 ‘소소심’을 익혀둔 사람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 세 가지를 익히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피해와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국민이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용어이다. ‘소소심’은 소방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법만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소방안전상식이다.

우선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기로서 화재 초기에 간단한 조작만으로 강력한 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화재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소화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로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시설이다.

익숙한 소화기에 비해 소화전은 실제 열어보거나 사용하는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지만, 사용법만 익혀두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반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하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 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것으로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 확률이 60%나 증가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고이기에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소소심’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전 상식인 만큼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꼭 익혀두시기를 바란다. 사용법 동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119 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골든타임은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소소심’을 익혀 준비된 자세로 맞선다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소방 응급처치 교육 1타 강사, 나야나!



글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서성원
인터뷰이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위 이효진

2022년 10월 21일,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가 아닌, 조금 더 큰 곳에 부평소방서 직원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소방청 ‘국민 의견 및 칭찬’ 게시판에 구급대원이자 응급처치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직원 3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이 등록된 것입니다. 칭찬 글의 주인공은 바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위 이효진, 산곡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원택, 소방교 소건오 구급대원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시글 작성자 배모 씨는 “강사님들께서 심폐소생술 이론 수업과 실습을 재치와 유머로 정말 재미있고, 꼼꼼하게 진행해주셔서 모두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분위기였다”라며 “실습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짚어주시고 잘한 점은 아낌없는 칭찬으로, 그리고 퀴즈와 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주시는 등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강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이효진 구급대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칭찬 글이 올라온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읽은 후 느낌은 어떠셨나요?

칭찬 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생분들의 칭찬은 제 심폐소생술교육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에게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활동도 매우 힘드실 것 같은데, 응급처치 강사를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트세이버를 18회 받으면서 인천소방 구급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급활동을 하던 중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자의 초기 응급처치 대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심폐소생술 강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나요?

사실 교직원 심폐소생술교육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서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정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만 듣고 대부분 시간만 보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는, 유사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 교육 수강자들이 최대한 즐겁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및 응급처치 강사로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자신있게 초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만나다

글 남동소방서 담방119안전센터 소방장 심정근



나는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머리가 매우 복잡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복잡할 게 아닌 일들이었다. 대부분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앞서 걱정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0.1%도 안 되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걱정하는 행동들이었다. 가끔 나 스스로가 걱정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기회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확실히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걱정은 누구에게나 찾아보기 마련이고, 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걱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또 관리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과거 세계 2차대전에 참전한 군인 중 33만 명이 안타깝게 전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간에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민간인들은 군인보다 무려 7배 가량 많은 200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쟁 공포, 전쟁 걱정 즉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냐?’, ‘우리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와 같은 걱정으로 인한 심장질환 발생으로 사망했다고 밝혀진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약 70% 정도는 걱정만 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의 내용 중 꼭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큼은 모두들 읽어보고 실천에 옮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1부, 2장. 걱정을 해결해 줄 마법의 공식’이라는 부분인데, 이 공식은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총 3단계로 되어 있으며, 1단계로 실패가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를 적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걱정만 하다가 그 걱정에 함몰되어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걱정은 집중력을 망가뜨려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막는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자신을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오기 때문이다.

자, 그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다니던 직장을 잃던가, 사업 투자금을 전부 날리거나, 보통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면 제2단계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제3단계는 이 최악의 상황을 개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걱정들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미국의 얼 헤이니라는 사람은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었다. 이를 진단한 세 명의 의사 모두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렸고,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된 헤이니는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걱정만 하다 갈 바에는 세계여행이나 하고 죽자는 결심을 하고 자신이 잠들 관을 짜서 여행을 다닌다. 궤양으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했으나, 헤이니는 여행 중 술과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여행을 즐겼다. 의사는 분명 여행 중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궤양은 이미 완치되었고, 몸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여기서 1단계 최악의 상황은 ‘죽음’이라는 상황이었고, 2단계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고, 마지막 3단계 죽을 걱정만 하면서 때를 기다리느니, 하고 싶었던 여행을 마음껏 즐기며 살다 죽자고 결정했다. 이처럼 걱정을 벗어난 방법을 택하였다니 죽음에서 삶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크고 작건 간에 걱정은 우리는 병들게 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걱정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출간한 지 무려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이 책을 많은 이들이 읽는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아빠의 세상

글 첨단초등학교 3학년 이지유
중부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 소방장 이한주 자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위이잉, 삐뽀 삐뽀
창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소방차가 뛰어가고 있다.

깜깜한 하늘 위에
달과 별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삐뽀 삐뽀
소방차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소방차들은 달려가고 있다.

친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세상 속 이야기를
난 바라보고 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난 우리 아빠를 생각 하며
걱정스런 마음으로

또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청한다.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기 간

2022.11.1. ~ 11.22.

대 상

인천시 초등학교

공모분야

화재예방 손그림 포스터

시상내용

총 3점 (대상 1, 최우수상 2)

12. 2.(금)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



인천소방본부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유지연

디자인 · 기획 · 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https://sonagicreative.com>